LG디스플레이 매출액 20조원 돌파

2010년 설비투자 4조원 계획 … 영업이익은 38% 감소 1조772억원

LG디스플레이가 2009년 매출액 2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했다.

패널 판매가격의 하락으로 4/4분기 영업이익은 전기대비 줄었지만 연간 영업이익은 1조원선을 유지했다.

LG디스플레이는 2009년 4/4분기 매출액이 6조822억원으로 전기대비 2%, 전년동기대비 46% 증가했다. 영업이익은 357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했으나 전기대비로는 판매단가 하락과 원화 강세의 영향으로 60% 감소했다.

연간 매출은 20조6136억원으로 20조원을 처음 돌파하며 전년대비 27% 급증했으나 연간 영업이익은 38% 감소한 1조772억원을 기록했다.

LG디스플레이 관계자는 "북미지역에서 블랙 프라이데이 기간의 LCD(Liquid Crystal Display) TV 판매 증가와 춘절에 대비한 중국의 주문량 확대에 힘입어 4/4분기 매출이 호조를 보였다"고 밝혔다.

4/4분기 LCD 출하량은 623만m^2로 전기대비 10% 늘어나 분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, 평균 가동률은 100% 수준을 유지했다.

LG디스플레이는 2009년 매출 호조에 힘입어 2010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4조원 규모의 설비투자를 진행할 계획이다.

LG디스플레이 권영수 사장은 "2010년에는 8세대 증설라인의 성공적인 양산가동과 3D 디스플레이, 태양전지, 전자종이 및 OLED(유기발광다이오드) 등 신규시장 선점을 위한 철저한 준비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"이라 말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– 무단전재·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10/01/20>